

범죄경력 외국인, 5대직종 취업 못한다

일반 가정에서 가사·육아도우미와 간병인 등으로 일하는 외국인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사전 등록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취업 사전 등록제' 운영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 취업 사전 등록제는 일반 국민이 가사·육아도우미나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범죄 경력이나 취업 가능 여부 등 신원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사전 등록 적용 대상이 되

법무부, '외국인 취업 사전 등록제' 본격 추진 가사·육아·간병·산후조리·요양보호사 하반기부터 시행...홈페이지서 직접확인 가능

는 외국인은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체류 자격을 가진 이들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외국인들에게서 등록 신청을 받은 뒤 해당 분야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범죄 경력이 있는지 등을 심사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

다. 가사 등 분야에 취업할 수 없는 체류 자격이거나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한된다.

또 법무부 자체 시스템을 통한 조회로, 범죄 경력이 없는 외국인에게만 취업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보 외에도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 건강진단서

등 취업·고용 관련 정보 제공된다.

법무부는 현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국민이 직접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외국인의 취업 등록 여부와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취업 사전 등록제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및 간병인을 고용하려는 국민들의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국민 안전 및 알 권리 신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스

멕시코법원, 미성년자 이민수용소 구금 금지

멕시코 시티의 한 법원이 이민당국에게 수도 멕시코 시티 이민수용소에 미성년자와 유아를 보내지 말도록 10일(현지시간) 금지령을 내렸다. 과테말라 출신 10세 소녀 한 명이 사망한 이후에 나온 판결이다.

판결문에는 현재 전국 이민수용소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실태를 당장 파악해서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수용된 어린이들이 수용소에서 곧 나갈 수 있게 이민당국이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사망한 과테말라 어린이는 라스 아구하스 수용소에서 침상에서 떨어져 부상 당한 뒤 상처가 악화돼 숨졌다. 엄마와 함께 북부 치와와 주 국경에서 체포된 이 아이는 멕시코 시티까지 버스로 이송되었고 수용소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사망했다.

영공항서 승객이 이륙 전 비행기 비상구 개방

영국 맨체스터 국제공항에서 여객기 탑승객이 비상구를 화장실로 착각해 개방,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지난 7일 맨체스터를 출발하려던 파키스탄 국제항공(PIA) 702편 이륙이 승객의 비상구 개방으로 7시간여 지연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승객은 여객기 이륙 전 화장실에 가려다 비상구를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개방했다. 이후 탈출용 미끄럼틀이 자동으로 펼쳐졌다.

40명의 여객기 탑승객이 이로 인해 여객기에서 대피했다. 항공사는 소동으로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교통편 및 숙소를 제공했다.

이스라엘군, 팔레스타인 구급차 총격

가자지구 북부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교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0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정부가 성명을 발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구급차의 의무장교에게 사격을 해 얼굴에 총을 맞은 그가 결국 숨졌다"며 "이는 중대한 전쟁범죄"라고 비난했다.

마이 아카일라 팔레스타인 보건부장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인들이 구급차를 향해 사격을 한 것, 인도주의적 구호에 나선 구급요원들과 의료진에게 고의로 조준사격을 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국제 조약과 관례에도 위반되는 폭력이며 살인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10일 오후 이스라엘군으로부터 지난 5월 3일 구급차가 집중 사격을 당할 때 얼굴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된 모하마드 알-제데일리(36) 대원이 결국 숨졌다고 발표했다.

그는 주말마다 이스라엘과의 국경에서 계속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위대한 귀향행진"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다른 의료진과 함께 구조활동을 계속해온 사람이라고 아카일라 장관은 말했다.

지난 해 3월부터 가자지구 국경에서 시작된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군 대치 과정에서 피살된 팔레스타인 구급요원은 벌써 4명이다.

가자지구에서 시위가 시작된 뒤로 이스라엘군에 피살된 팔레스타인 주민 수는 307명이며 부상자는 1만7000명이 넘었다. 120명 이상이 팔다리 절단을 겪었다.

팔레스타인 시위대는 2007년부터 가자지구의 빈곤한 팔레스타인 주거 지역에 내려진 이스라엘의 봉쇄령을 풀려줄 것을 요구하며 매주 시위를 벌여왔다.

미 맨해튼 건물 헬리콥터 추락 조종사 사망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서 헬리콥터 한 대가 건물에 향해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했다고 AP통신과 CNN 등이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뉴욕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2시에 미드타운 맨해튼 7번가의 한 건물에 헬리콥터 한 대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은 타임스스퀘어와 록펠러센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헬리콥터가 건물 옥상에 착륙했으며 화재가 발생해 현재 진압 중이라고 말했다. 또 건물 안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추락한 헬리콥터가 어떤 헬리콥터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사고 현장에 관련한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출연기관 출연금 연평균 20.7% 큰 폭 증가

광주시의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 재정 부담과 함께 방만운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11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광주시 예산결산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가 출연해 설립한 14개 출연기관의 최근 5년 간 출연금이 연평균 2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예산이 5년 평균 4.72% 증가한 데 비해 출연기관의 예산 증가율은 20.77%로 광주시보다 4배 이상 높다.

기관별로 광주시의 연평균 출연금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광주그린카진흥원으로 44.05%로 나타났다. 이어 평생교육진흥원 24.49%, 광주테크노파크 21.96%, 광주과학기술진흥원 16.72%, 국제기후환경센터 13.66%, 광주경제고용진흥원 12.49%, 광주문화재단 11.79% 순이다.

출연금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복지재단으로 3.79%로 집계됐다.

출연금 증가 원인은 인건비 상승, 사업량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방만한 재정운용이나 예산낭비 사례가 없는지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해결위는 지적했다.

광주시의회 해결위는 "관행적인 점증주의식 출연금 증가가 없는지 지도감독 부서와 평가부서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은홍 기자



구름반 하늘 반 미세먼지 '보통' 수준 이상으로 공기도 깨끗한 11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이 구름 사이로 파랗게 보이고 있다.

자살시도자 47% '고위험'...응급실 사후관리로 우울감↓

최근 3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응급실을 찾은 환자 절반 가까이 한 달 내 다시 시도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총동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하고 3명 중 1명 이상의 도움을 얻을 목적이었는데 사후관리 서비스 네번만에 위험도와 우울 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11일 '2016~2018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2013년부터 시행해온 이 사업은 병원 내 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사례관리팀 등 2~3인으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조직하고 시도자에게 응급치료부터 상담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 재시도자, 유족 등엔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과 연계해 치료비를 지원 중이다.

사업 참여기관이 2016년 27개에서 2017년 42개, 지난해 52개 병원으로 확대되면서 내원 시도자 수도 8372명, 1만2268명, 1만7553명 등으로 증가해 총 3만8193명이 됐다.

응답자 2만6631명 중 과거 자살 시도 경험 1회 이상인 사람은 9299명으로 전체의 34.9%였다.

향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673명이었는데 그 기간이 일주일 내라는 응답자가 2966명(38.7%), 일주일~1개월 내라는 사람이 644명(8.4%)으로 절반에 가까운 47.1%가 한 달 안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개월~6개월 내 337명(4.4%), 6개월 이상 293명(3.8%) 등이었으며 3433명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동기(중복응답 총 5만732건)로는 정신과적 증상 1만5748건(31.0%)으로 가장 많았고 대인관계 1만640건(21.0%), 말다툼 등 6341건

(12.5%), 경제적 문제 4858건(9.6%), 신체적 질병 3385건(6.7%) 순이었다.

시도자 절반 이상(52.0%)이 응급 상태였으며 2만8589명 중 87.7%인 2만5070명이 총동적으로 시도했고 계획적으로 시도한 사람은 12.3%(3519명)였다. 응답자 2만6115명 중 절반 이상인 1만3278명(50.8%)은 시도 전후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에 심리치료를 줬다고 답했다.

전체 내원 시도자 3만8193명 가운데 사후관리 서비스에 2만955명 이 동의했으며 이 중 1만8339명이 1회 이상 접촉했다.

이들 가운데 4회까지 사후관리 접촉을 진행한 1만2045명에게선 서비스가 진행될수록 위험도와 생각 및 계획, 알코올 사용문제, 식사 및 수면문제, 우울감 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폐치료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말에는 검진기관이 운영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129]

h-well 국민건강검진

[고객센터 1577-1000]